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4월호

2022 April
Vol. 601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봄맞이 꽃놀이 명소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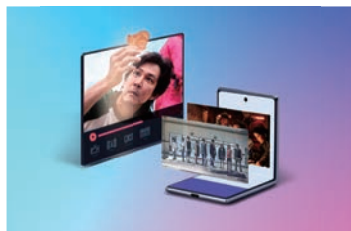
04

봄 맛이 꽃놀이 명소
 절정의 봄! 부산 벚꽃 여행지 TOP 4



08

문화 돋보기
 K-콘텐츠 전성시대와 부산



10

골프에 반하다
 미리 떠나보는 베트남 골프여행
 골린이에 대한 단상(斷想)



14

CEO의 단골 맛집
 가성비비와 가심비 모두 갖춘 '명지 양곱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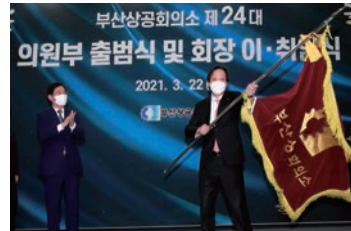
16

가객의 인문학
 Z세대에게 다가가는 길
 '토이'와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ZOOM in BCCI

18

부산상공회의소 24대 의원부 1년



20

Story of 캡틴 장



22

Together with 203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역 각계의 노력



24

기업포커스
 대한제강(주)



28

Look at Me
 스타트업 '쥬비엔아이'



트렌드 TALK

32

Do You Know MZ?

34

배달음식 전성시대

경제 KEYWORD

36

2022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38

BCCI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40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6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쿠폰북





절정의 봄! 부산 벚꽃 여행지 TOP 4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문득 불어온 바람에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비로소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계절은 이미 봄의 한 가운데다. 앙상하던 나뭇가지가 새하얀 벚꽃으로 뒤덮일 즈음 봄은 절정에 다다른다. 우물쭈물 하다가 또 일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부산에도 황홀한 벚꽃 명소들이 지천이니 멀리 갈 것도 없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봄기운 가득한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 보자.





1_ 온천천 주변에 핀 유채꽃
2_ 온천천 벚꽃길과 카페거리



☘ 온천천

동네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인기가 많은 온천천. 봄이면 하천을 따라 아름답게 벚나무가 하얀 벚꽃을 가득 피워내 유명 관광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일단 벚나무가 워낙 오래되고 커서 꽃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온천천을 따라 1km 남짓 이어지는 벚꽃길도 장관이다. 온천천 주변으로 동백꽃이며 유채꽃 등 여러 봄꽃도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좋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 근처 세병교에서 출발해 연산교까지 쪽 걸어가면 그 끝에 온천천 카페거리가 있다. 온천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봄날을 즐길 수 있다.



☘ 달맞이길

부산 최고의 벚꽃 명소는 단연 해운대 달맞이길이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고갯길인데 길 양옆으로 오래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봄이면 환상적인 벚꽃길을 만든다. 달맞이길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은 운치가 넘쳐서 예로부터 대한광경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특히 벚꽃이 흩날리는 봄, 달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산책로는 부산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여행코스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겨도 되지만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미포에서 송정까지 두 발로 걸어보길 추천한다.

3, 4, 5_ 달맞이고개 벚꽃길



6_ 대저생태공원 벚꽃길
7_ 대저생태공원 대규모 유채꽃단지



☘ 동백역

벚꽃이 지천으로 필 때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동백역 2번 출구로 나가면 하늘에서 벚꽃이 쏟아져 내린다. 부산에서 흔치 않은 수양벚꽃이다. 하늘하늘한 가지에 벚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가지가 일렁일 때마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멋진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사람은 없다. 길 건너 대우 마리나아파트 단지도 온통 벚나무로 가득하다. 화려한 벚꽃 사이로 보이는 마린시티의 초고층 빌딩들이 생경하게 느껴진다. 길가엔 동백꽃도 함께 피어 있으니 부산의 봄을 제대로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 대저생태공원

부산하면 바다를 먼저 떠올리지만, 부산에는 강도 있다. 낙동강 하류가 바다와 만나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낙동강 주변의 드넓은 땅은 철새들이 찾는 자연의 보고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청정지대. 그래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강변을 따라 다양한 생태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부산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대저생태공원도 그중 하나다. 도로변 강둑길을 따라 벚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봄이면 기막힌 벚꽃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부산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마련돼 있어서 윈 없이 꽃구경을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대규모 유채꽃단지도 있어서 벚꽃과 유채꽃의 화려한 조화를 즐길 수도 있다.



8_ 대우마리나아파트 단지에 핀 벚꽃나무
9_ 동백역 길가에 핀 동백꽃

K-콘텐츠 전성시대와 부산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스트·영화평론가



지난해 시작된 <오징어게임>의 국제적 수상 소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OTT를 강타하고 있는 K-콘텐츠 열풍은 비단 <오징어게임>에서 멈추지 않는다. 3월 첫째 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시리즈 부문 글로벌 TOP 10에 <소년심판>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비영어권 시리즈 상위 10편 중 절반이 K-콘텐츠다.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다.

2016년 1월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넷플릭스는 2019년 국내 첫 오리지널 시리즈로 <킹덤>을 제작해 K-콘텐츠의 가능성을 짐쳤다. <킹덤>은 글로벌 대중에게 널리 소비되는 좀비물을 조선이라는 시대 배경과 결합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이 작품의 아이디어와 기획이 10여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는 영상 기술 측면이나 좀비물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부족, 무엇보다 투자할 한국의 방송국과 제작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제작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과감한 투자, K-콘텐츠에 날개를 달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제작의 기회는 많아졌다. OT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과감하게 투자한다. 한국 관객에게 넷플릭스의 과감한 사업 수행이 각인된 것은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서였다. 넷플릭스는 <옥자>의 제작에 당시 한국 영화 제작비 중 역대 최고액인 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사전 제작비 투자 대신 해당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해외 유통권, 판권은 모두 넷플릭스에 귀속된다. 한국 관객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점에 당황했고, 그해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옥자>의 경쟁 부문 초청을 두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영화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OTT 서비스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방식과 규모뿐 아니라 시청의 패러다임까지 모두 바꿔 놓았다.

<오징어게임>으로 넷플릭스가 9억 달러(약 1조 670억) 이상을 벌어들이자 국내에서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는 OTT 기업의 사업 수익 구조이기에 넷플릭스 바깥에서 벌어지는 논의는 실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유사 구조의 OTT 기업이 자신들만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콘텐츠의 비중을 현행 85%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넷플릭스의 K-콘텐츠 제작비는 약 1조 2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웨이브가 2025년까지 1조, 티빙이 2023년까지 4천억, 카카오가 2023년까지 3천억 투자 계획을 밝히며 국내 OTT 기업들도 K-콘텐츠 투자에 가세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예능, 다큐멘터리로 영역을 확대해갈 것이다.



출처: 넷플릭스

한국형 콘텐츠

그러나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K-콘텐츠가 지금의 영광을 이어가려면 콘텐츠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징어게임>의 돌풍에 가장 많은 평가는 지극히 한국적인 내용이 글로벌 관객에서 통한 놀라움이었다. <킹덤>에 따라붙던 ‘한국판 좀비물’, ‘조선 시대로 옮겨온 좀비’ 등의 수식어는 <스위트 홈>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반복되지만, <오징어게임>에는 없다. 글로벌 장르의 한국식 변형이 아니라, 한국의 시대와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콘텐츠가 각광받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소년심판>의 1위 수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시리즈는 좀비는 물론이고 로맨스와 치정, 전쟁과 세계사의 각색, 권력층의 부패 등 글로벌 대중에게 익숙한 장치 없이 한국 현실을 이야기한다. 미국식 콘텐츠의 외연 확장이 아닌 K-콘텐츠만의 정체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 K-콘텐츠라는 고래에 올라타라.

OTT와 K-콘텐츠라는 거대한 흐름은 지역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옥>과 <마이네임>의 일부 회차를 넷플릭스보다 선공개 상영해 주목받았다. 영상물 소비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에서 촬영한 OTT 영상 제작물이 2019년 0편에서 2021년 11편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중 넷플릭스 시리즈 <D.P.>는 부산의 남항 일대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부산 어묵을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K-콘텐츠 제작에 지역 명소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K-콘텐츠 제작팀이 부산을 찾을 것이다. 지역 산업도 이 거대한 시류에 발맞출 방법을 고민할 때다. 🇰🇷



미리 떠나보는 베트남 골프여행

글&사진_ Ytour&golf www.ygolf.co.kr



1,2_ 호이아나쇼어즈 카지노스윗 리조트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진다. 에어부산은 트래블버블 지역인 사이판에 이어 오는 5월 이후부터는 괌,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노선이 부산에서 해외로 취항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다낭지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이기도 하거니와 골프, 단체연수, 가족여행 등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1등 해외골프목적지 중 하나이다.

01 남호이안 빈펄리조트

베트남은 빈펄리조트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 없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베트남 최고의 품격복합리조트. 5성급 리조트와 풀빌라를 기본으로 잘 조성된 18홀 골프장부터 워터파크, 놀이동산 천국인 빈펄랜드와 리버사파리 등 온 가족을 위한 즐길 거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여행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이안을 관광하거나, 셔틀버스를 통해 다낭 시내 자유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02 호이아나쇼어즈 카지노스윗

화려함으로 가득 찬 고급스러운 객실은 탁 트인 바다와 리조트 전망, 최고 수준의 전담 버틀러 서비스,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등 인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 143개의 럭셔리한 스위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적인 예술성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다. 카지노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03 호이아나CC

세계100대, 아시아3대골프장. 티업이 15분으로 하루 100명의 골퍼들만 라운드가 가능하다. 태평양과 아일랜드의 장엄한 뷰를 사랑하는 Hoiana Shores Golfclub(HSGC)은 모든 수준의 골퍼들에게 짜릿한 링크골프 경험을 선사한다. 멋진 자연의 해변, 럭셔리한 클럽하우스, 18개의 도전적이며 아름다운 홀은 골프애호가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코스이다.

04 빈펄CC

전장 7,124야드의 18홀 골프장으로 다낭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초특급리조트나 빌라에 투숙하여 이동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 어린자녀들이 있거나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어도 새로운 개념의 위락 시설인 빈펄랜드와 리버사파리를 즐길 수 있다.



3_ 호이아나CC

4_ 빈펄CC



항공스케줄

다낭 매주 목요일 3박5일
일요일 4박6일 운영

주요 관광지

호이안 올드시티 야경투어,
바나힐스

추천 리조트

남호이안 빈펄리조트
호이아나쇼어즈 카지노스윗

추천 골프장

호이아나CC, 빈펄CC

골린이에 대한 단상(斷想)

골프는 철저하게 고수를 위한 스포츠다. 고수의 스윙은 간결하고 우아하다. 하수의 스윙은 힘이 바짝 들어가 옆에서 보기에 불안하기 그지없다. 고수의 티샷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페어웨이에 안착하고 하수의 티샷은 산 쪽으로, 물 쪽으로 날아간다. 때로는 멀리건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철저하게 고수를 위한 스포츠, 골프

티샷후에도 고수는 연습 스윙을 하며 에이밍도 잡아가며 세컨을 준비한다. 하수는 공 찾느라 여념이 없다. 시간이 지날라치면 동반자와 캐디에게 눈치밥을 먹어야 하고 공을 못 찾으면 소심하게 공 하나를 더 꺼내 들어야 한다. 벌타를 몇 개 받을 것인가는 고수의 배려에 따른다.

그린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컨을 온그린시킨 고수는 일찌감치 그린의 상태와 라인을 보며 버디를 하려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있고 하수는 세컨 플레이를 하고도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카트를 타지 못한 채 헐떡거리며 그린 주변에 와야 한다. 보통은 어프러치를 해야 할 때가 많다. 재미 삼아 내기라도 할라치면 핸디를 적용받아 본들 안 잃으면 다행이고 보통은 더블판 적용이 대부분이라 몇 홀 지나고 나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18홀 플레이 내내 고수는 하늘 같은 대접을 받고 하수는 떨어진 자존감으로 대화조차 주눅 들어 하기도 한다.

골프장에서 고수들은 멋있어 보인다. 산에 가면 산악 대장이 멋있고 군대에서는 병장이 멋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들이 장소를 벗어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골프장에선 공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제일 우월하다.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둡처럼 내 심장에 딱. 딱. 꽂혀 든다. 이진희 회장이 생전에 거금을 주고 타이거우즈와 18홀 동반 라운드를 한 후 'Don't head up' 딱 세 마디를 들었다고 하니 고수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문답과 같다. 그래서 하수는 고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그들과 함께 라운드를 명예로 여기며 골프를 즐겨왔다.

골프 대중화의 한 축, 골린이의 등장

요즘 대한민국의 최고 고수는 누구일까? 안타깝게도 소위 '골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의 골퍼들이다. 골프장의 룰과 라운드의 법칙을 새로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은 동반자를 예우하지 않는다. 티타임 30분 전쯤 여유 있게 와서 미리 인사하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여유를 갖지 않는다. 철석같이 지켜야 하는 골프 약속도 차가 막히고 늦잠을 자고 급한 일 등의 이유로 잘 지키지 않는다. 최근엔 코로나 이슈도 많아졌다.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코로나로 한정 시켜 보면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보다 골퍼 대비 코로나 확진이 몇 배는 많을 듯 하다.

그들은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골프 대중화로 골프장에 들어서는 복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는 데다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건 당연하다. 모 골프장 팀장의 경우 티박스에서 불이 안 올라온다고 캐디한테 어찌 된 일이나 물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니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골프의 룰을 개척한다. 멀리건을 알아서 쓰기도 하고 벙커에 들어간 공을 그냥 꺼내서 치기도 한다. 파3홀 사인을 받은 뒤 앞 팀 그린플레이 도중에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동반자가 오케이를 주지 않는다고 볼펜 소리를 하며 화를 내기도 한다.

스코어가 아닌 매너와 품격이 고수를 만든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긴다고 하니 반가운 일인 건만은 확실하다. 골린이가 골프 대중화의 큰 축이니 그들과도 잘 지내야 할 듯 하다. 다만 먼저 길을 걸어간 고수님들의 행동과 여유를 한 번쯤은 되새겨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골프선배들이 고수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스코어나 SNS가 아닌 매너와 품격이다. 골린이든 아니든 존경받는 골프 고수가 되려면 꼭 지녀야 할 품성이자 멤버운동인 골프의 사회성이기도 하다. 🏌️‍♂️



전설들의 골프명언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안다. 이틀을 연습 않으면 깰러리가 안다. 사흘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

- 벤 호건 (메이저 9승, PGA투어 63승)

골프에서 50%는 심상, 40%는 셋업, 그리고 나머지 10%가 스윙이다.

- 잭 니클라우스 (메이저 18승을 한 현대 골프의 거장)

골프 스코어의 60%는 핀에서 125야드 이내에서 나온다.

- 샘 스니드 (생애 PGA투어 최다승(82승)을 거둔 거장)

화가 나서 클럽을 내던질 때는 전방으로 던져라. 그래야 주우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 토미 볼트 (급한 성질로 유명했던 선수, 58년 US오픈 우승자)

골프는 아침에 자신(自信)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저녁에는 자신을 잃게 하는 게임이다.

- 해리 바든 (바든 그립을 개발한 영국의 프로 골퍼)

집중이란 자신감(Pride)과 갈망(Hunger)에서 나온다.

- 아놀드 파머 (왕(King)이라 불린 모던 골프의 최고 스타, 메이저 7승 달성)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Dough).

- 보비 로크 (1950년대 퍼팅이 뛰어났던 남아공의 골퍼로 디오픈을 4번 우승함, 퍼팅이 결국 승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갖춘 ‘명지 양곱창’

가격과 맛, 만족감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충족하는 맛집이 있다. 바로 서면 롯데백화점 앞 부전동 사거리에서 부산진경찰서 방향 쪽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한눈에 봐도 일반 음식점들과는 다른 느낌을 풍기는 정겨운 한옥 인테리어의 ‘명지 양곱창’이다.

젊은 나이에 도전정신으로 시작한 식당

1994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식당 간판만 달면 손님이 저절로 오는데 줄 알고 식당을 시작했다고 하는 ‘명지 양곱창’의 김명자 사장님. 명지 양곱창이란 상호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릴 적부터 집에서 불리던 이름이 ‘명지’였는데, 20대 때 지인과 함께 용하다는 스님께 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스님이 반드시 장사하게 될 운명이라고 하며 장사를 할 때 상호는 ‘명지’로 하면 좋겠다고 한 것에 영향을 받아 ‘명지 양곱창’이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스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65번길 25



1_ 명지 양곱창의 김명자 사장님
2,3_ 명지 양곱창 ‘등심’과 ‘양곱창’

서면 인근의 찐 로컬 맛집

명지 양곱창은 언뜻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게지만, 이미 서면에서 장사를 한 지 29년이 된 진짜 로컬 맛집이다. 알고 보니 지역의 유명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도 단골로 꾸준히 찾아오며, 각종 모임 예약도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특히 주요 고객들로는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과 같은 은행원들이 많이 찾아준다고 하였으며,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소개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였다.

주요 메뉴는 양곱창, 등심, 돌솥밥 정식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양곱창 전문 식당으로 생각되었지만, 양곱창과 등심, 돌솥밥 정식도 핵심 메뉴다. 양곱창과 등심의 주문 비율은 반반, 돌솥밥은 가게를 함께 시작했던 종업원의 권유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점심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특히 돌솥밥 정식은 광우병과 구제역과 같은 이슈로 고기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장사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 매우 소중한 메뉴라고 한다.

BNK부산은행과 소중한 인연

주로 금융권 고객들이 많이 찾아준다고 말하는 사장님은 특히 BNK부산은행과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도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작하고, 이곳으로 확장 이전을 해올 때도 가게를 자주 찾아주던 단골

손님인 부산은행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이전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인연들이 누적되면서 명지양곱창은 부산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BNK금융그룹의 김지완 회장님도 명지 양곱창의 단골로 등심이 최애 메뉴라고 한다.

정성이 깃든 음식과 정직의 운영 철학

사장님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부전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님상에 올리는 반찬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 만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곱창과 등심 등 고기류도 처음 공급받던 곳에서 30년 가까이 받고 있는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직하게 장사하자는 사장님의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 그러한 평가를 받아온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정직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명지 양곱창 돌솥밥 정식

Z세대에게 다가가는 길 '토이'와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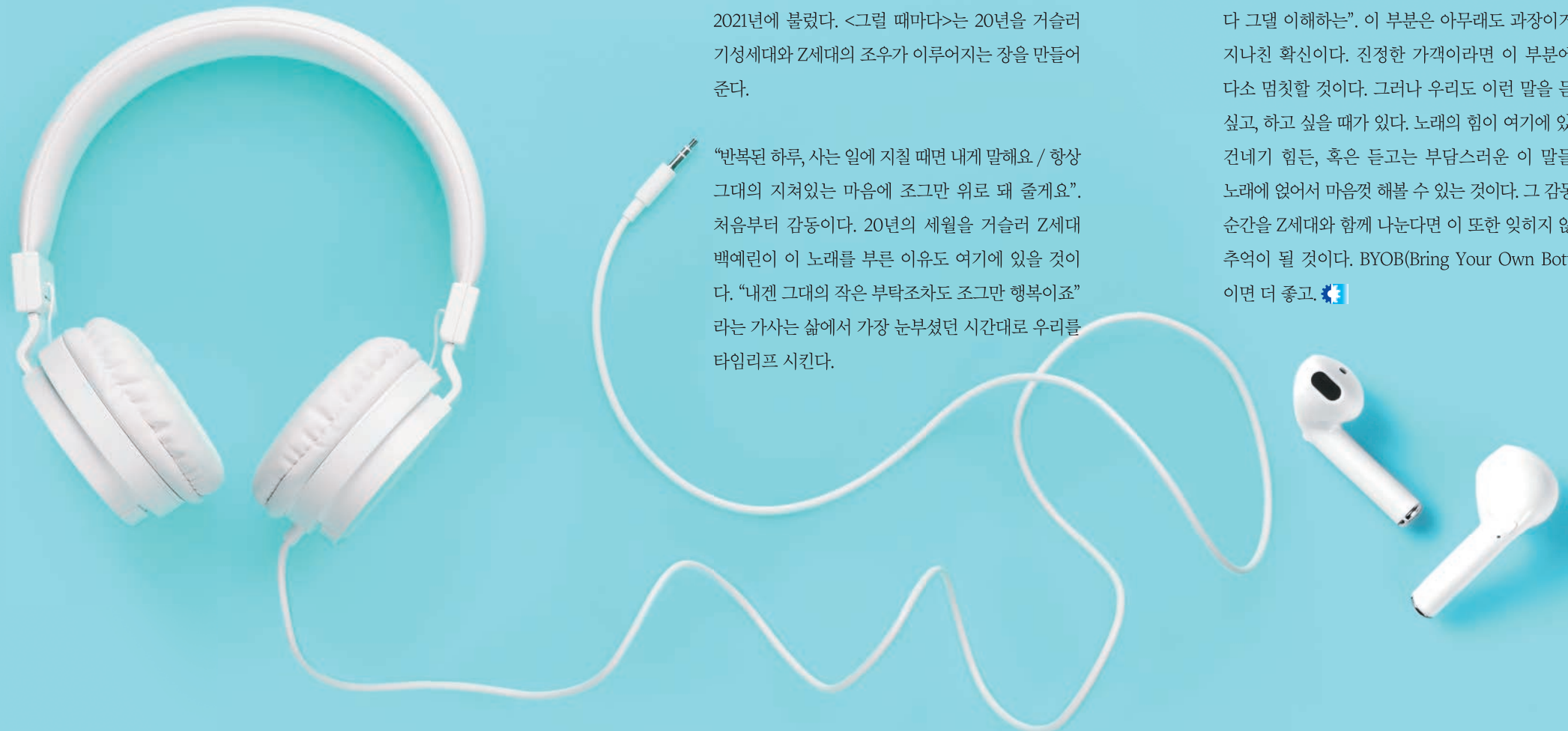
'변화'는 좋은 것이었다. 변화에 따르는 것이 즐겁고 설레기도 했다. 변화 없는 삶은 지루하고 퇴행적이라 여겼었다. 최근엔 변화가 두렵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다.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뒤처질까 두려움도 생긴다. 포모증후군(FOMO: 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은 있다. Z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슬쩍 Z세대에게 영기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절대 굴욕적이지 않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솔직한 기성세대를 Z세대는 양해한다. 기성세대를 좋아하기야 하겠느냐는, 적어도 끼워주기는 한다. Z세대에게 사랑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현세대는 현세대끼리 끌리지, 결코 기성세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Z세대의 주변부에 잠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MBTI 심리검사를 해본 것도 이 때문이다. MBTI 결과를 믿어서가 아니라,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Z세대조차도 MBTI를 신봉하지는 않는 듯하다. 단지 그들은 MBTI를 참조로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 다른 사람의 성격과 취향, 태도와 가치관, 습관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직관에

따라 상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척도에 기대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서로의 MBTI를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MBTI를 전제로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M세대조차 Z세대에선 기성세대다. 대학에서 M세대와 Z세대를 모두 가르친 나로서는 두 세대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낀다. M세대는 '슬픈 세대'였다. 그들이 20대일 때 각종 비관적인 신조어가 생겨났었다. 삼포세대, N포세대, 헬조선 등, 이전 그 용어조차 과거의 것이 돼 버렸다. M세대는 '박탈'의 세대였다. 그들은 이전 세대가 누렸던 것이 순간적으로 휘발돼 버린 시대에 절망했었다.



Z세대도 절망감을 느끼지만 M세대와는 다른 차원이다. Z세대는 더 활기차고 명랑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탈이 이전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Z세대는 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음을, 달라진 세상은 달라진 패러다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세대 연대감을 갖는 듯하다. 소셜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생각과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작은 팬덤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도 자기 의견을 건강하게 표현한다.

이런 매력적인 Z세대와 수월하게 만나는 길도 있다. Z세대가 좋아하는 가요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수월하다고 했지만 역시 쉽지는 않다. 기성세대가 Z세대의 리듬과 감성을 좇기 쉬운 리 없다. 다행히 우리에게엔 리메이크 버전이 있다. Z세대도 과거 노래를 자기들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해 부른다. 가령, '토이'의 <그럴 때마다>를 '백예린'이 부른다. 토이는 2001년, 백예린은 2021년에 불렀다. <그럴 때마다>는 20년을 거슬러 기성세대와 Z세대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어 준다.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 줄게요". 처음부터 감동이다.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Z세대 백예린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겐 그대의 작은 부탁조차도 조그만 행복이죠"라는 가사는 삶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간대로 우리를 타임리프 시킨다.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다. "내겐 그대의 짜증 섞인 투정도 조그만 기쁨이죠". '그대의 짜증 섞인 투정이 기쁨'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그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내게 투정을 부려주는 그대가 귀엽고 귀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극복되면 우리도 고객이 되어 백예린 버전으로 <그럴 때마다>를 함께 불러 보면 어떨까. 세상 무해한 목소리로, 힘 완전히 빼고, 절대 잘 부르려 하지 말고, Z세대처럼 쿨하게. 쉽지 않다. 잘 부르려 애쓰는 것보다 잘 부르려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어렵다. 게다가 진심으로 "내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디 쉬운가.

이 노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다. "나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세상 누구보다 그댈 이해하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장이거나 지나친 확신이다. 진정한 고객이라면 이 부분에서 다소 멈칫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노래의 힘이 여기에 있다. 건네기 힘든, 혹은 듣고는 부담스러운 이 말들을 노래에 얹어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감동의 순간을 Z세대와 함께 나눈다면 이 또한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될 것이다. BYOB(Bring Your Own Bottle) 이면 더 좋고. 🍷

부산상공회의소 24대 의원부 1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 3월 24대 의원부 출범 후 '새로운 부산상의 통합과 혁신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4대 의원부 출범식 및 회장 이·취임식



03. 22.

부산상공회의소 윤리강령 선포식



06. 21.

부산상의 회장단 르노삼성차 현장방문



07. 0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



10. 05.

부산시-부산상의 경제협약체 대표회의



12. 14.

국민의힘 부산지역 선대위 초청 상공인 간담회



01. 26.

04. 28.



부산시-부산상의 정책협력 간담회

06. 25.



부산상공회의소-라라스테이션 업무협약식

08. 2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시-부산상의 간담회

11. 25.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12. 03.



부산상공회의소 스타트업 데이 99°C

02. 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상공인 간담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민간의 구심점으로서 유치 활동을 이끌어 왔으며, 부산시 및 지역 정치권에 부산 경제와 회원기업 발전 위한 정책과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역 경제의 나침반으로서 부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Story of 캡틴 장

#01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중요한 날 2022. 2. 25.(금)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계셨지요??^^

다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한분, 한분 감사드립니다^^



#회장단 회의
#2. 25.(금) 10:30
15 3



#제228회 의원총회
#2. 25.(금) 11:00



#부산상공회의소 제228회 의원총회
일시 | 2022. 2. 25.(금) 장소 | 상막홀

지난해 결산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팡팡팡!

#02 3월의 캡틴장

회장님!
가덕도신공항 차질없이
진행되겠지요??^^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이사회
#2022. 3. 3.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지역협력업체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뉴비전 선언식
#2022. 3. 16.

시장님!
부산상의회와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 핵심현안
해결해봅시다!



#부산발전 핵심현안 국정과제화
#부산시-부산상의 합동회의
#2022. 3. 17.
35 11

부산의 미래인
지역 청년들이 성장하고
꿈을 펼치는데 써주이소!



#장인화 회장 부경대학교
#발전기금 1억 기부
#2022. 3. 1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역 각계의 노력



부산이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2023년 6월에서 11월로 변경되고, 부산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 모스크바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남에 따라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부산의 미래발전 동력이 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역 각계의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지난해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계의 구심점으로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 간담회, 부·울·경 경제계 공동지지 선언식, 원로기업인 후원금 전달 등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산 지역 내 유치 열기를 조성하기 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UCC 공모전 엄지척 오디션」을 개최하여 부산시민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모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더욱 북돋워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엄지척 오디션’ 포스터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주체로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배우 이정재를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인기 유튜버 ‘초마드’를 섭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치기원 캘리그라피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연합 주요 인사를 부산으로 초청하여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7개 시·도회의의장을 세계박람회 유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지속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_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누리마루하우스)
2_ ‘부산에 유치해’ 포스터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에 유치해 #엄지척 오디션



#지역기업 및 기관

지역의 기업들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후원금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최근에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적금도 출시하였다. 대산주조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소주 600만병을 제작한다. 아울러 부산시설공단은 메타버스 공간인 ‘제페토’를 통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3_ 부산은행 2030부산월드엑스포 적금 출시
4_ 대산주조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 협약식



#부산시민

이외에도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플로깅 릴레이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의 주요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5_ 범시민 서포터즈 플로깅

Make the Invisible Visible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 대한제강(주)

철근은 건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물을 단단하게 지탱하며 건축물의 가치를 보여주는 뼈대가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가며 오랜 기간 단단한 뿌리를 내려온 향토기업 대한제강은 ‘고객 만족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창출’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대한제강은 제강사 최초 코일철근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솔루션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핵심가치인 정도(Integrity)와 혁신(Innovation)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 온 대한제강은 지난 2020년 9월 와이케이 스틸을 지분인수하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대한상사 시절 동래공장(1964초공)



대한제강 녹산 제강공장

제강공정 이송(전기로→LF)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Integrity - 기본을 중시하는 정도경영

1954년 대한상사로 시작한 대한제강이 오랜 기간 제강업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에 충실한 성실과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완수 회장이 늘 강조해 온 원칙 중 하나가 ‘성실’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1년도 부터 대한제강은 준법경영체계 준수를 위한 준법교육 및 철저한 공정거래 가이드를 통해 사내 윤리·준법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임직원 모두가 윤리·준법서약과 Integrity 윤리규범의 성실한 준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해가고 있다.

직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회사

대한제강은 지속적인 상생을 강조하며 노사분규 없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시에도 인원감축 없이 직원과 한마음으로 위기를 헤쳐 온 대한제강은 상생의 노사 문화를 창조하며 2008년 노사상생협력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2년

제4회 부산고용대상, 2013년 남해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 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사상생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제강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던 회사인만큼 지역에 대한 사회적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회사와 임직원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Steel Heart Scholarship은 훌륭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도에 시작된 장학사업으로, 부산 지역의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발하여 매년 개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246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장학금을 지원 해왔다.



제강공장_전기로 장입

또한 대한제강은 김장행사, 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소외계층 지원활동 같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내에서는 사원들의 친목을, 사외로는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끌어내고 있다.

오형근 부회장은 “경영자나 관리자는 스포츠감독과 같기 때문에 구성원이 마지못해 경쟁에 떠밀리기보다 즐기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몰입하여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Innovation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FrameWorks와 신사업

대한제강은 제조업이라는 한 분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사업에 대한 혁신도 끊임없이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도입한 FrameWorks는 확립된 솔루션에서 탈피하여 개별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사의 로스올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이점 제공을 통해 건설사와 제강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왔다. 대한제강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철근가공, 물류서비스 제공, 코일철근(Bar in Coil)과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 도입을



1_ 제강공정_연주
2_ 코일철근(Bar in Coil) 생산

통해 국내 제강능력 업계 3위(제강능력 연 100만 톤, 압연 능력 연 155만 톤)의 철근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이에 오치훈 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을 하든 ‘불확실성’이 아닌 ‘기대’하는 태도로 ‘길’을 잃지 않는 일”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한제강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먹거리 창출을 고민하며 신사업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공장



평택공장 내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무재해 사업장으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고 위험이 많은 생산직, 생산관련 사무직에게 더욱이 안전문화가 스며드는 게 중요한 한 해다. 대한제강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략팀’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보건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인 안전문화 진단,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감독자/안전순찰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코칭 지도사 교육, 근로자 참여형 UCC 공모전 등의 활동을 통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 안전문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잘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Recycling 선순환 기업으로의 도약 -

GR인증 취득.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대한제강은 버려지는 고철을 재활용하여 철근 제품을 생산해내는 Recycling과정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최근 대한제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우수재활용 제품(GR인증, Good Recycled Product)을 받았다. GR인증은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녹색 제품 품질 기준 충족 및 국내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1997년에 국내 도입되었다. 대한제강은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하는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철근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탄과 철광석을 주원료로 하는 고로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탄소저감활동 등으로 친환경적인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1_ 철스크랩 장입
2_ 안전보건경영선포식
3_ 준법윤리서약(이경백 대표, 김재웅 감사, 한성민 대표)

또 한 번의 도약, 와이케이스틸과의 통합 시너지 창출

2021년 대한제강은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룬 상반된 한해였다.

또한 2020년 9월 와이케이스틸을 지분인수하면서 철스크랩(고철) 수입 구매력과 건설사 철근 판매 협상력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2021년 매출 및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한 대한제강은 이번 와이케이스틸 인수로 인해 양사 합산 제강 능력이 273만톤으로 철근 생산 능력 2위인 동국제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국내는 부산 본사인 신평공장, 녹산공장, 평택공장, 서울지사를 운영중이며, 싱가포르, 미국LA의 해외법인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동종사인 와이케이스틸과의 통합시너지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대한제강을 꿈꾼다.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지게차(건설기계장비)와 근로자 충돌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치 개발 기업 (주)비엔아이

최근 3년 동안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5명 중 1명은 건설기계 장비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지게차 (건설기계장비)와 근로자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2018년에 설립된 스마트안전 관리기업 (주)비엔아이이다.

BNI - Building New Intelligence

사고는 예방 가능해야 하고, 컨트롤 가능해야 한다(BNI슬로건) 신생업종인 '스마트안전관리업'을 사업화하고 있는 (주)비엔 아이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주)비엔아이는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사고 예방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개발, 설치 등 총체적인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지게차 구조상 발생하는 사각 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과속운전이 있으며, 비엔 아이는 이외에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직접 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지게차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장에 실효성 높은 안전장치 개발이 가능해졌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안전기술 관련 특허(지식재산권)를 46건 획득하고 과학기술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53회, 제55회 발명의 날 '발명가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 방 대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2018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주)비엔아이를 창업하였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은 많은 고충이 따랐다. 가장 큰 부분은 자금이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저축한 자금과 퇴직금을 전부 회사에 투자하였지만 한참 역부족이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방 대표는 정부 및 시지 자체의 지원사업을 활용 하였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산재예방 분야' 방병주 대표 발표 모습

- 1_ 울산(현대중공업) 선박건조업 현장 선주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회의 모습
- 2_ 2018년 제53회 발명의 날 "발명가부분 표창"
- 3_ 2020년 제55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21년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밀레니엄클럽)

최우수 기업 줄업을 시작으로 IP나래프로그램, 2019년 초기창업 패키지, 2021년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며 성과공유제 계약도 체결하였다. 방 대표는 정부나 시지 자체의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이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게차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실현하고 있는 (주)BNI 스마트안전장치

(주)BNI는 AI(인공지능)카메라, 속도제한장치,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BNI AI카메라는 지게차(건설기계장비)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전자나 작업환경내 근로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인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존의 카메라들이 감지율 및 감지속도 저하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BNI AI카메라는 지게차(건설기계장비) 사고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운전자 시야의 사각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한 시야를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선(Led Line) 및 경광등을 통한 시각각 알람도 제공한다. BNI 속도제한장치는 지게차(건설기계장비)의 과속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 장치는 3단계 알람을 제공한다. 만약 제한 속도를 10km/h로 설정해두었다면 5km/h(1단계 알람)-8km/h



- 1_ BNI-ai카메라 외형 모습
- 2_ BNI-ai카메라 작동 모습(외부)
- 3_ BNI-ai카메라 작동 모습(내부)
- 4_ BNI-지게차 운행관리 플랫폼(App.)



4



부산상사가 주최한 '부산 스타트업데이 99°C' 행사에 참여한 (주)비엔아이 방병주대표 발표 모습

(2단계 알람)-10km/h(3단계 알람 및 제어)로 최종 3단계에 속도가 다르면 안내방송과 함께 속도가 10km/h 이상으로 가속되지 않는다. 바퀴에 무선센서를 부착하여 바퀴의 회전수를 환산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제어방식 또한 전자식 방법으로 지게차의 출력(리프트, 주행 등)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BNI 지게차 운행관리 플랫폼(App)은 BNI 단일제품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자 및 운전자에게 필수정보를 제공한다. 지게차의 위치정보, 운행정보(가동률) 및 평균 주행속도 등을 제공한다. 특히, 평균 주행속도를 운전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운전습관을 재점검해보고 안전의식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부산 스타트업데이 99°C 덕분에

(주)비엔아이 방 대표에게 창업 시장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많은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자세보다는 사고 발생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 사업장에는 당연히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방 대표는 기업의 매출도 걱정이지만 안전이 등한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업을 접기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는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작년 12월에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스타트업데이 99°C' 행사를 통해 부산의 선배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엔아이의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발표 이후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가 BNI의 지게차 스마트 안전장치를 기업에 도입하였고 이후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도 대선조선, 화인베스티, 동일철강에 BNI 지게차 스마트안전장치를 도입하였다. 방 대표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 덕분에 부산에 소재한 많은 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안전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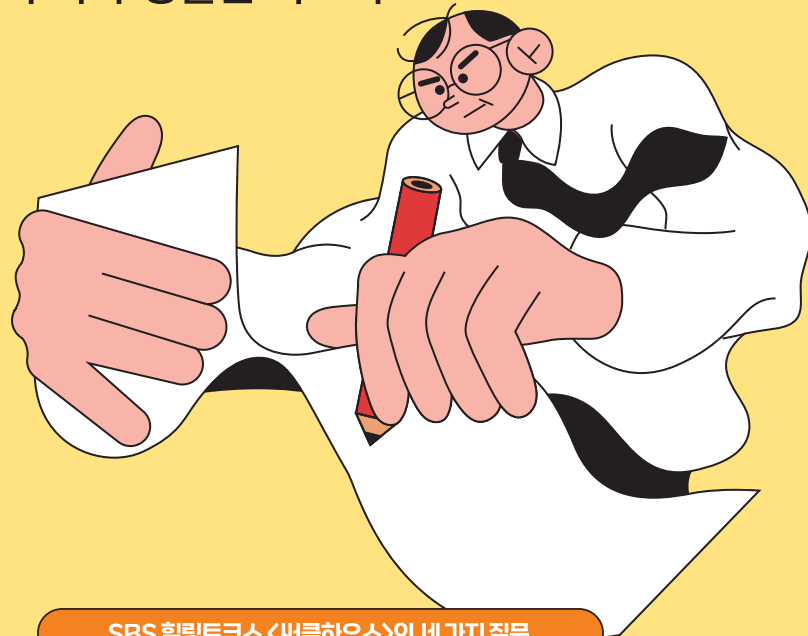
(주)비엔아이의 목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는 환경의 일반화, 2만 달러일 때 안전의 일반화, 3만 달러일 때 보건의 일반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선진국이지만 산재 사망율은 높은 편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주)비엔아이 지게차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형 건설기계 장비까지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것과 동시에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시도와 도전에 끊임 없이 투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BNI-AI카메라 적용완료(동국제강)

Do You Know MZ?

MZ세대와 기성세대의 회사 생활은 다르다



SBS 힐링토크쇼 <써클하우스>의 세 가지 질문

최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출근 시간 개념에 차이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었다. 이 글의 요지는 글쓴이가 회사 막내에게 “출근 시간 15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 준비를 해라”고 말하자, 회사 막내가 “지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퇴근 시간 15분 전에 퇴근해도 되나요?”라고 답을 듣게 되었다고 밝히며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MZ세대들의 주된 반응은 지각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9시 정시 출근이 맞기 때문에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유럽은 주 35시간제를 도입하는데 한국은 주 52시간을 강요한다. ‘나 때는~’을 찾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기성세대들은 MZ세대들은 칼처럼 끊는 것을 좋아하니 8시간 업무시간 동안 잡담, 휴식 없이 지속적인 업무강도 유지와 고용에서 자유로운 해고까지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점심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업무시간에 지장 없이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TV 프로그램 SBS 힐링토크쇼 <써클 하우스>에서 끈대팀과 MZ세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살펴보자.

? 출근 시간은 일 시작 시간일까,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까?

끈대팀 “출근 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 “개인 사정을 다 봐줄 수 없기에 근무와 동시에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은 급여에서 빼도 되는 건가?”

MZ팀 ‘계약서’를 근거로 “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일에 포함되는 것”, “휴식 시간도 더 좋은 효율을 위한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매 순간 100%를 쥐어짤 순 없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출근 시간에 대한 생각 차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이다. MZ세대는 출근 시간=회사에 도착하는 시간, 기성세대는 출근 시간=업무 시작 시간 이라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회식은 직장생활이 도움이 될까?

끈대팀 ‘회식은 소통과 친목을 위하여 필요하다’

MZ팀 ‘결국 업무의 연장’, “우리나라 회식 문화도 수직적 조직문화의 영향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 “일과 팀원을 사랑하지만,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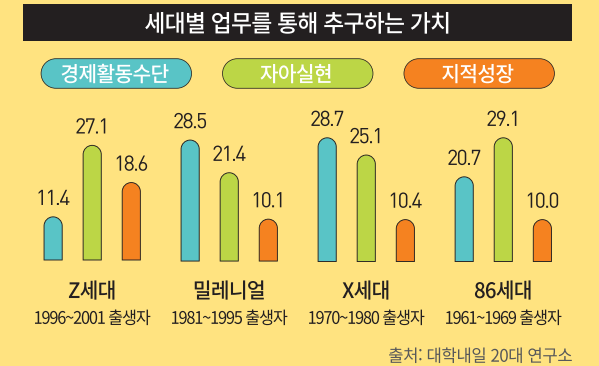
‘회사는 회사’,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MZ세대와 회사를 더 중요시하는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나타낸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MZ세대는 회식문화에서의 소통과 친목을 이해하지만,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고 회식에서의 소통과 친목이 아닌 평소 쌓아오는 소통과 친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퇴근 후에 연락은 가능하다, 아니다?

끈대팀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면 업무 특성상 책임지고 감수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

MZ팀 근무시간 외 업무 ‘부탁이나 지시냐’, “퇴근 후 연락이 선배님들의 자유지만, 개인 시간에 메시지를 확인 하지 않는 것도 나의 자유”

근무시간 외라도 업무적인 내용을 연락할 수 있다는 기성세대와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적인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MZ세대의 대립에서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기성세대는 업무시간 외라도 본인의 업무이고 책임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면 MZ세대는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자유인만큼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것 또한 본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MZ세대는 이전과 달리 같은 현상에 대해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기업들의 주된 근로자가 MZ세대라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MZ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 인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이 향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MZ세대와의 공존 전략을 잘 수립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끈대 자가 Test

- 확실한 퇴근보다 높은 연봉이 좋다.
- 후배들에게 ‘나도 쿨하다’라고 어필한다.
- 나이가 들수록 어썩든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이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솔직하면 기분 상한다.
- 회식이 있는 경우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후배에게 이야기한다.
- 휴가는 가더라도 카톡 답은 해야 한다.
-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
- 회사 생활은 자유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다.
- 후배나 동료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1~3개**
나는 나 너는 너!
선 넘지 마세요! ‘파워 MZ’
- 4~5개**
나 끈대 아닐끈대...
알끈달끈 ‘서러운 끈대’
- 6~8개**
부정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끈밍아웃! ‘빼박끈대’
- 9~10개**
입만 열면 공기 반 끈대 반~
누가 뭐래도 ‘상끈대’

배달음식 전성시대

과거에는 배달음식이라 하면 요리하기 싫을 때 간편하게 한 번씩 시켜 먹는 수단으로 배달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도 짜장면, 치킨, 피자 등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떠올랐지만, 점차 다양한 음식이 배달되기 시작하고,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2019년 9조, 2020년 17조, 지난해는 약 23조로 추정되는 만큼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소위 말해 '매우 핫한' 시장이다.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집에서 즐기는 시대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의 제약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점도 주된 이유 중 하나겠지만, 배달음식이 과거의 배달음식과는 종류와 질 모든 면에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중식, 치킨, 피자를 뛰어넘어 한식, 양식, 일식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명한 맛집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모든 음식이 배달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아울러 식사뿐만 아니라 디저트류인 커피, 베이커리도 집에서 편안하게 배달 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핫한 배달음식 트렌드는?

그렇다면 최근 배달음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발표한 '배민트렌드 2022'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내역을 살펴보자. (주)우아한형제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인기 많았던 키워드로는 '로제', '민트초코', '마라'를 꼽았다. 로제는 2020년 대비 주문 수 약 7배 증가, 민초는 2.4배 증가하였으며, 마라는 10대들이 선택한 메뉴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연령대별 즐겨 배달하는 음식

우아한형제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음식 선호도 달랐다. 10대가 마라탕을 가장 선호했다면, 20대와 30대는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주문하였으며, 또 40, 50대는 짜장면 주문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떡볶이는 전 연령대의 주문 수 5위안에 들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 1위 | 마라탕 | 아메리카노 | 아메리카노 | 짜장면 | 짜장면 |
| 2위 | 매운떡볶이 | 떡볶이 | 짜장면 | 짬뽕 | 짬뽕 |
| 3위 | 치킨버거 세트 | 치킨 | 짬뽕 | 떡볶이 | 떡볶이 |
| 4위 | 치즈 떡볶이 | 짬뽕 | 떡볶이 | 불고기버거 세트 | 아메리카노 |
| 5위 | 떡볶이 | 짜장면 | 볶음밥 | 아메리카노 | 간짜장 |

출처: 배민트렌드 2022

향후 방향은?

이제 배달음식은 단순히 간편함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배달음식 문화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

2022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글_ 전미영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코비드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20으로 가져왔다” 미국의 쇼핑 플랫폼 ‘쇼피파이’ 부회장 페이델 포드의 말처럼,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은 트렌드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2022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10대 키워드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보자.



① 나노사회

나노사회는 극소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나에게 중요한 트렌드를 내 옆의 사람은 모르는 나노사회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며 나만의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간다.

② 머니러쉬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쉬(gold rush)’에 빗대어,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쉬(money rush)’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투잡, N잡,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에 뛰어든다. 머니러쉬 트렌드는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활용해 수입창출에 나선다는 점에서 개인적 ‘앙터프리너십’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다.

③ 득템력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단지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넘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득템력’이 새로운 과시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상품 과잉의 시대, 돈만으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 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④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시골의, 촌스러운’의 뜻을 가진 러스틱(rustic)이란 단어가 ‘매력적인, 럭셔리한’의 의미로 거듭난다.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5일을, 시골에서 2일을 보내는 오도이촌(五都二村)의 조화로운 삶이다. 러스틱 라이프는 인구과밀로 고통받는 대도시 예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⑤ 헬시플레저

“좋은 약은 입에도 달다.” 젊은 세대가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하는, 이른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다. 건강과 놀이, 일과 휴식의 조화를 도모하는 선진국형 건강관리가 성장한다.

⑥ 엑스틴 이즈 백

그 많은 X세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지금의 MZ보다 더 큰 충격으로 세대 담론의 출발을 알렸던 신세대의 원조였다.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어 친구 세대같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X세대’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X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다. 이 새로운 40대는 기성세대보다 풍요한 10대를 보내며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틴’(X-teen)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⑦ 바른생활 루틴이

자기관리에 철저한 신인류가 나타났다. 루틴(routine)이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데, 스스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바른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근로시간 축소와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전반적인 생활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통제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업과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⑧ 실재감테크

실재감테크는 가상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인간의 존재감과 인지능력을 강화시켜,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실재감테크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커머스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매끄럽게(seamless)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

⑨ 라이크커머스

좋아하면 산다. 각종 SNS의 발달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탄생은 ‘상시’ 쇼핑시대를 열었다. 개별 크리에이터는 팔로워의 ‘좋아요(like)’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 제조전문회사에 제조를 위탁하고 전문 물류 업체를 이용해 유통을 해결한다. 이렇듯 동료 소비자의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주도 유통과정을 ‘라이크 커머스’라고 명명한다.

⑩ 내러티브 자본

서사(narrative)는 힘이 세다. 강력한 서사(敍事),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당장은 매출이 보잘 것 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 이야기(story)가 표현된 내용 자체라면, 내러티브는 내용을 담는 형식이다.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부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최신 경영·경제 정보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인포



정부,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정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을 특별 대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한다는 것이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해 특별대출 2조원을 대출 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해 신규로 공급한다.

|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금리우대 | 규모 |
|-------|-------------------------|-------|----------|-----|
| 산업은행 | 중소·중견기업지원자금 | 중소·중견 | 최대 40bp | 0.6 |
|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 | 중소·중견 | 최대 90bp | 0.2 |
| 기업은행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 중소 | 최대 50bp | 0.7 |
| 수출입은행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중소·중견 | 최대 100bp | 0.5 |

☎ **자금지원 신청문의**
 산업은행(02-787-5611), 수출입은행(02-6252-3416),
 중소기업은행(02-729-7494)

‘ESG 목표’ 설정만 해도 금리 최대 1%p 깎아준다!

대한상의는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Sustainability Linked Loan)’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연계대출’은 기업이 다양한 ESG항목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한 후,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이행하면 금리인하 지원을 받는 구조로 BNP 파리바, ABN암로 등 글로벌 은행들도 활용 중이다. ‘ESG성공지원 대출’은 현재 ESG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개선 의지를 갖고 ESG경영 목표를 세우면 목표 수준에 따라 최대 1%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G성공지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ESG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상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IBK기업은행에 별도로 대출신청을 하고 일반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대출신청문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내 좌측 하단 ‘ESG 지속가능성연계대출’ 배너 참고



창업기업 해외진출 팁 무료 사무공간 활용하세요

K-스타트업 센터(Korea Startups Center)는 세계 유수의 혁신 창업 생태계에 국내 창업기업이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의 창업 중심지에 구축된 창업기업 전용 해외진출 지원 거점으로 총 7개국* 에서 K-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7개국: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프랑스(파리), 이스라엘

<K-스타트업 센터별 입주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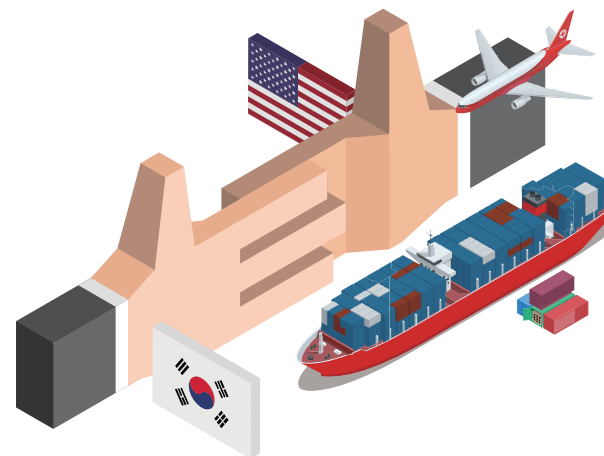
| 설치부지 | 시애틀 | 뉴델리 | 싱가포르 | 스톡홀름 | 합계 |
|-------|-----|-----|------|------|-----|
| 독립실 | 7 | 14 | 8 | - | 29 |
| 공유사무실 | 30 | 45 | 17 | 12 | 104 |
| 합계 | 37 | 59 | 25 | 12 | 133 |

창업기업은 1년 간(최대 2년) 또는 출장 시 단기간 입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K-스타트업 센터 내 타 기업과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상담, 현지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이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센터 통합 플랫폼(www.k-startupcenter.org)을 운영 중인만큼 K-스타트업 센터 통합 플랫폼에서 입주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하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주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자 미국이 체결한 FTA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여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중 갈등 등으로 지난 10년 간 전 세계의 교역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미 양국의 교역은 연5.7%씩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FTA 발효 전인 2011년 8.5%에서 2021년 11.9%로 3.4%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역시 2.57%에서 2021년 3.35%로 늘었다. 국내 생산이 많지 않았던 아보카도, 바닷가재 등 고급 농수산물의 수입 또한 증가해 한국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미국 승용차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또한 9.6%에서 25.9%로 크게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한국에 43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한국은 미국에 약 3배 많은 1337억 달러를 투자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자동차, 생활가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생산 설비를 꾸준히 늘려나간 결과다. 한·미 FTA의 다음 10년은 안정된 공급망 확보와 공동가치를 수호하는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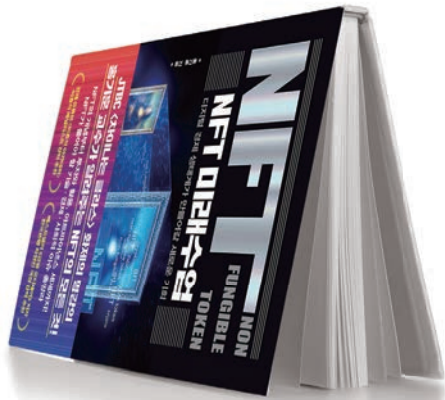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01 NFT 미래수업
홍기훈 | 한국경제신문 | 18,000원



이 책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기술인 NFT의 개념부터 기술적 형식, 사회적 현상, 경제적 가치 그리고 향후 NFT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2022년 현재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NFT 세계의 전반을 다룬다. 저자인 홍기훈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블록체인,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의 혁신 기술을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코인'편에서 명강의를 펼쳐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홍 교수는 이번 신간 《NFT 미래수업》을 통해 NFT가 무엇인지, 왜 'NFT'만 붙어도 가치가 오르는지, 현재의 과도한 열풍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 새로운 신경제 자산이 안고 있는 명과 암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준다.

02 사장님 회사에서 이리시면 안 됩니다
조현우 | 나비의활주로 | 17,000원

매출을 증대하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사장의 공통된 목표이자 고민이다. 그래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일에 매진하지만 사업을 해 나갈수록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사고 때문에 늘 곤혹을 느낀다. 특히 '회사의 체계(시스템) 구축'과 '사람 문제'가 그렇다. 그 문제들을 매 순간 책임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가 바로 사장의 자리다. 이 책은 사장들이 회사 경영에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해법을 담고 있다. 22년간 IT, 바이오, 엔지니어링,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사장의 핵심 참모 및 기획관리자로 활동해 온 저자의 생생한 조언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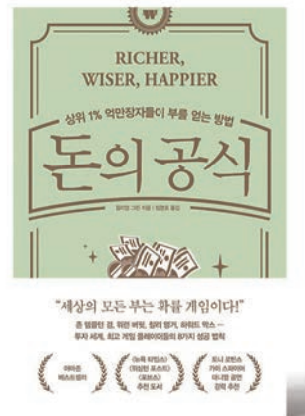
03 무조건 잘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합니다
이상태 | 리더북스 | 15,000원



장사나 사업에 관해 잘 모르면서 무작정 창업했다가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사업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는 예비창업자와 사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TOP 50의 명쾌한 해답이 담겨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동시에 경영하며, 공익과 사익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저자는 사업의 본질과 성공의 조건을 낱알이 공개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의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사업을 요리에 비유하여 잘되는 사람이 사업을 요리하는 7가지 도구를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사업의 7가지 도구만 알면 희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4 돈의 공식
윌리엄 그린 | 알에이치코리아 | 19,000원

돈, 명성, 행복을 향한 당신의 갈망은 어디까지인가? 그 목표가 어디이든지 이 책 《돈의 공식 Richer, Wiser, Happier》이 당신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뉴욕 타임스> <포브스> <타임> 등 굴지의 언론사 기자로 활동한 이 책의 저자, 윌리엄 그린 William Green은 25년간 세계적 투자자 40인을 독점 인터뷰했다. 그 중에는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 워런 버핏, 찰스 멩거를 비롯하여 새로운 투자 역사를 쓰고 있는 조엘 그린블라트, 가이 스파이어, 닉 슬립과 같은 금융계 아웃라이어들까지, 평생 마주치기도 어려운 투자 거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그들을 '세계 최고의 게임 플레이어'로 칭하며, 그들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는지 그 비밀을 8가지로 압축하여 이 책에 담았다.



05 빅데이터 사용설명서
김진호 | 메이트북스 | 18,000원



우리는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 센서, SNS가 데이터의 폭증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많은 세계적 기업에서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독보적 경쟁우위를 굳혔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빅데이터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모든 것을 담은 입문서이다.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떤 흐름으로 시대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

배기일 회장 한국수산무역협회 13대 회장으로 선출

배기일 회장[세화씨푸드(주)]이 한국수산무역협회 1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게 되었다. 현재 12대 회장이기도 한 배기일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다. 배기일 회장은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협회의 발전과 한국수산물수출 증진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오렌지를 담은 프리미엄 맥주 ‘블루문’ 출시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동욱)은 세계 3대 맥주 기업 몰슨 쿼어스(Molson Coors Beverage Company)의 ‘블루문(Blue Moon)’를 3월 1(화)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몰슨 쿼어스는 세계 3대 맥주 기업 중 하나로, 이번에 선보이는 ‘블루문’은 벨지안 화이트 에일 스타일의 크래프트 비어로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산·C1소주, ‘2022 대한민국 주류대상’ 大賞 수상

대산주조(대표 조우현)는 3월 14일(월) ‘대선’과 ‘C1’이 국내 최대 주류 품평회인 ‘제9회 2022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70여 명의 전문 주류 시음단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소주, 맥주, 위스키, 스피릿, 우리술, 와인, 사케 등 주종 별 최고의 술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파나시아(주) 한국형 RE100 가입

파나시아(주)(대표이사 이수태)가 한국형 RE100인 K-RE100에 가입하고 친환경 녹색경영을 강화한다고 3월 14일(월) 밝혔다. 파나시아는 K-RE100 가입으로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실천해 오는 2050년까지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 ESG경영 확산 위한 조직문화 혁신 위한 킷오프 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3월 2일(수) 본사 비전룸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2 Change KOSPO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킷오프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2022 Change KOSPO 조직문화 혁신’을 시작하기 위해 “제대로 들겠습니다”,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부산교육청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협약

BNK부산은행은 3월 3일(목) 부산시 교육청에서 내일 행복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바우처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생이 사용하게 될 취업 준비금 카드를 발급하고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동화엔텍, 동아대&부경대와 산합협력 협약 체결

(주)동화엔텍(대표이사 김동건)은 3월 15일(화) 동아대(총장 이해우) 및 부경대(총장 장영수)와 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동화엔텍은 동아대 및 부경대와 친환경에너지기술과 디지털혁신기술 분야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에 협력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구장학생’ 제도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11기 개강식 및 제11회 글로벌경제인 NEXT 포럼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3월 15일(화) 오후 6시 코모도 호텔 2층에서 글로벌 경제인 과정 11기 개강식 및 제11회 글로벌 경제인 NEXT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상의 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CEO 양성 과정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최신 트렌드의 경영·경제 과정을 제공한다.



부산발전 핵심 현안 국정과제화 부산시-부산상의 합동회의

부산상공회의소는 3월 17일(목) 10시 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부산시와 부산발전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화 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부산상의회와 부산시가 지역핵심 현안 등 각종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통해 부산

상의회와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북항 재개발 조속 완성, 수소경제 구축,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비롯한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과 연계한 13개 세부 핵심 혁신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로 대응해가는데 뜻을 모았다.



르노삼성자동차 뉴비전 선언식 개최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16일(수) 오전 11시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뉴비전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언식에서 르노삼성자동차는 사명을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한 엠블럼을 공개하며 미래차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어부산, 부산-광 노선 운항 재개 주2회 운항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오는 4월 30일(토)부터 부산-광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3월 17일(목)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일정은 주2회(화·토) 운항편 모두 최신형 항공기 A321neo를 투입한다. A321neo 항공기는 다른 LCC 항공기보다 좌석 간격이 넓고 소음은 적어 승객에게 쾌적한 탑승감을 제공한다.



선보공업·선보유니텍 해운대구 아동복지시설 후원

선보공업(주)·선보유니텍(주) (회장 최금식)은 17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서 해운대 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9,000만원을 전달하였다. 기부금은 부산사랑의 열매로 전달되었으며, 성금은 반여다함께돌봄센터 화장실 개보수와 학대 피해아동 회복과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에 쓰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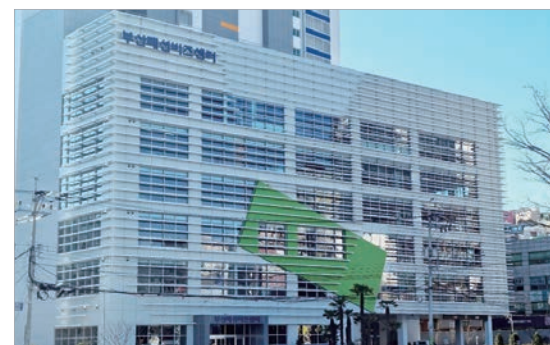
부산시 바이(BUY) 부산 캠페인 선포식 개최

부산시는 3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바이(BUY) 부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브랜드 살리기 소비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패션비즈센터 개관

부산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부산패션비즈센터'가 3월 22일(화) 개관하였다. 범일동에 건립된 부산패션비즈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부지면적 1613㎡, 연면적 7677㎡)로, 패션컨벤션홀, 소류, 스마트재단지원실, 특수장비실, 시제품 지원실, 융합교육실, 입주기업 공간 등이 있으며 부산패션창작 스튜디오와 부산 패브릭 메이커 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은산해운항공(주) '쌔쌔이가 바른기업'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은산해운항공(주)(회장 양재생)은 3월 22일(화) 대한적십자사 '쌔쌔이가 바른기업' 정기후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쌔쌔이가 바른기업'은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매달 20만 원 이상 정기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후원금은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4월 중순~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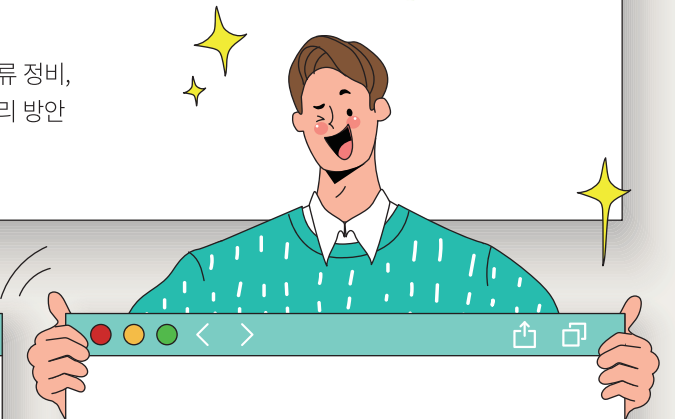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용 절감 노하우

- 일시** 4. 22.(금) 09:00~13:00
- 장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대상** 인사노무관리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 내용**
 - ① 노동정책 및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방향
 - ②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내용: 노동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 노무관리 3위일체(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 ③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RISK 관리: 채불임금, 민원업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법적 RISK 관리방안
 - ④ 불필요한 법정수당 절감 및 RISK 관리: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안
 - ⑤ 임금체계설계 및 각종 수당관리: 최저임금 인상 관리, 포괄임금제 및 연봉계약 활용
 - ⑥ 산업안전관리 필요성과 RISK 관리: 중대재해법 해설 및 처벌기준, 단체상해보험 및 근재보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 일시** 4. 22.(금) 14:00~18:00
- 장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대상** 인사노무관리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 내용**
 - ①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 개선방안
 - ②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내용
 - ③ 근로감독 대비 노무관리 KNOW_HOW: 노무관리 서류 정비, 주휴수당 관리, 통상임금 산정기준 및 수당관리 방안
 - ④ 근로감독 대비 핵심포인트 및 체크리스트

기업의 율하를 인사·노무·총무 업무를 위한 필수 과정을 함께 해보세요.



근로시간 및 임금관리

- 일시** 5. 12.(목) 09:30~17:30
- 장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대상** 인사, 노무, 총무, 기획, 급여담당자 및 관리자
-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 내용**
 - ① 근로시간의 개념
 - ② 근로시간의 운영
 - ③ 휴일 및 휴가 관리 전략
 - ④ 임금의 이해와 임금관리 프로세스
 - ⑤ 각종 수당의 운영 전략
 - ⑥ 임금의 지급과 법적 책임

하루 만에 총무업무 종합마스터하기

- 일시** 5. 16.(월) 09:00~18:00
- 장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 대상** 세무, 회계, 총무, 기획, 재무관리 및 관리자
- 수강료** 회원 88,000원, 비회원 176,000원
- 내용**
 - ① 총무역할 및 패러다임 변화: 총무업무 특성, 총무관리 역량 개발, 패러다임 변화
 - ② 사무행정 및 회의관리: 통일성 관리, 기록물 관리, 회의 성격 및 회의기법
 - ③ 행사전략 및 복리후생: 행사 매뉴얼 구성, 경조사 관리, 복리후생 전략
 - ④ 총무자산 및 임대관리: 효율적 관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권 및 임대차 기초
 - ⑥ 총무계약 및 권리구제: 거래 계약서 작성 분석, 내용증명 등 분쟁 대처, 매출채권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쿠폰북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 혜택을 더 즐겁게 똑똑하게 누리보세요!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부산경제포럼 연간 10회 무료수강



부산상의 의원 및 회원사 임원, 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고급 경제·경영 조찬강연 제공
(연간 10회 무료수강, 호텔 조찬 포함)

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무료 지원



법정의무 교육을 포함한 경영·직장문화·교양강좌 등
전문 강사의 무료 방문교육 지원
(당연회원사 방문 교육비 전액지원)

종합직무능력검사 K-TEST 최대 50% 할인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 선발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직무능력을 진단하는 서비스 제공
(종합직무능력검사비 30~50% 할인)

글로벌 경제인 과정 할인 110만원 할인



미래 지역 경제계를 이끌어갈
기업인을 대상으로 CEO양성 프로그램
회원기업 수강료 110만원 할인

비즈니스 실무 강좌 할인 수강료 50% 할인



회원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세무·회계·인사·
노무 분야의 실무 교육 할인제공(수강료 50% 할인)

회원기업 기념행사 포상 지원



회원기업의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부산상의 회장 명의 표창 및 부상 전달

무역인증 서류발급 지원 수수료 할인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관계 서명등록 및
원산지증명(C/O) 무료발급, ATA까르네 발급수수료 할인

부산상공회의소 화상 회의실 무료 이용



원격회의 및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화상회의실
무료 제공(부산상의 회관 4층)

부산상공회의소 명지어린이집 보육 지원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의 근로자에게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우수한 보육기회 제공

회원기업 의료지원 서비스 최대 20% 할인



지역 주요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기업
임직원과 가족의 종합검진료 할인 제공(10~20%)

지역기업의 인재채용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회원기업 사업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지원



회원기업의 신사업 추진, 신제품 출시 등
홍보가 필요할 때 부산상의 출입기자실 네트워크를 통한
언론홍보 지원

서울역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 이용



부산·울산·경남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역사내(4층) 비즈니스 라운지 시설 무료제공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비 할인



부산상공회의소와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특별 할인가로 면허취득
기회 제공(단체신청시(10인이상) 교육비 할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대관 최대 50% 할인



부산상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상의 회관 내
최신 회의시설의 요금할인
(당연회원: 50%, 임의/특별회원: 20%)

제조물(PL) 책임 보험료 최대 100만원 할인



부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PL(제조물책임)
보험료 40% 할인제공(최대 100만원)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적금

월드엑스포란?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천원 이상 3백만원 이하
(천 원 단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기간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 단위)

기본이율

2022.02.14 현재, 세전 기준

| 가입기간 | 적용이율 |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연 1.8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연 1.90% |
| 30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 연 2.00% |

우대이율

최대 **1.90%p** (우대이율 상세요건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 문외]

-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 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 하시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 유치 예상효과 | 개최기간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경제적 파급 효과 | 일자리창출 |
|---------|--------------|--------|-----------------|-----------|-------|
| | 2030. 5월~10월 | 부산북항일원 | 약 200개국 5,050만명 | 61조원 | 50만명 |



Make The Invisible Visible.

대한제강은 '철근'이라는 한 분야에서 신뢰를 쌓는 동시에
과감한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작은 철물점에서의 변화가
오늘날 대한제강의 역사가 되었듯, 대한제강은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가치로 만드는 기업, 대한제강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DaehanSteel

FrameWorks™
Your Steel Advisor